

Chapter 03. **희망담기**

한번 새로운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딛어 봅니다.



기대합니다  
**Tomorrow**



**박찬수** \_\_\_\_\_ 재활코치팀 / 팀장

장애인 당사자로서 바라는 전문재활병원의 모습이 있습니다. 병원이라 당연히 치료가 우선이지만, 완치가 어려운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참여자(환자)에게 신체적 치료뿐 아니라, 이후 삶도 충분히 가치 있고 그 전 삶과 다르지 않음을 전하는 마음치료까지 해주는 병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년 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이 그런 병원으로 알려지고 그렇게 되기까지 장애인 당사자인 재활코치가 큰 역할을 하고, 모든 재활병원에서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이 롤모델이 되는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연** \_\_\_\_\_ 재활1팀 / 부파트장

복지가 좋은 병원으로, 사람들이 서로 입사하려고 이력서가 끊임없이 들어오는 병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내가 꿈꾸고 희망하며 그리는



**강명승** \_\_\_\_\_ 재활2팀 / 작업치료사

부산 및 경남 지방권에는 재활전문으로 하는 특출하게 유명한 병원이 크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에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유명한 병원이 있는데(재활관련-작업치료) 아직 지방권에는 그런 병원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나눔과행복병원이 부산 지역을 대표하고 나아가, 경남권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복지와 대우가 우수하며 모두가 입사를 희망할 수 있는 병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여자와 치료사 또한 병원에 근무하고, 알고 계신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병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봉학** \_\_\_\_\_ 재활1팀 / 부팀장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이, 곧 부서의 성장이 되고 병원의 성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직원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류미경** \_\_\_\_\_ 관리기획팀 / 팀장

지금처럼 안팎으로 내실을 기하며 잘 성장하여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이라는 브랜드 네임의 가치가 올라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고객으로서 방문하여 치료받고 싶어하는 병원이 되어 낮고 약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끼칠 수 있는 병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정숙** \_\_\_\_\_ 간호팀 / 책임간호사

제가 꿈꾸고 바라는 우리 병원의 미래상은 지역사회  
의 자랑스러운 재활병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  
사회의 질적인 건강과 삶까지 책임질 수 있는  
공공의료병원 설립으로 더 확장되고 발전되었  
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침례병원의 공공의료 병원화  
소식을 접할 때 마다 우리 병원이 그런 병원이  
되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고, 우리 병원  
이 그 병원을 운영하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연향** \_\_\_\_\_ 간호팀 / 책임간호사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이 살  
기에 불편함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원장님  
의 뜻이 담긴 병원을 전국으로 확산, 설립하여 다른  
병원의 모범이 되고 실제로 장애인이 살기에 편한  
사회가 되는데 앞장서는 병원이 되길 바랍니다.

##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은?



**성민규** \_\_\_\_\_ 재활코치팀 / 파트장

모든 직원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병원, 장애·  
비장애인 직원들이 함께 어울려 근무하는 것이 자연스러  
운 병원, 장애인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병원  
(재활코치팀이 아닌 모든 부서에서..)



**권혜정** \_\_\_\_\_ 유방·갑상선센터 / 파트장

[나눔] 질병 뿐 아니라 일상과, 생각과,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단순한 병원을 넘어선 지역  
사회의 힐링명소



**길향현** \_\_\_\_\_ 재활2팀 / 파트장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내 아이가 태  
어나 아버지가 이 곳 출신이라고  
했을 때 가슴을 짝 펴고 자랑스럽  
게 말할 수 있는 곳이 되게끔 노력  
해야 되겠습니다. 📍



십년 후  
十年後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 몸담고 있는 직원분들께  
10년 후 나의 모습에 관하여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 누구에게나 희망을!!  
누구에게나 행복을!!  
행복나눔의  
전도사가  
되고자 합니다.

권진태  
(총무기획팀/팀원)

- 10년 후, 병원 이름  
앞에 있는 내 이름 석자로  
인해 우리 병원이  
더 빛이 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맡은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습니다.

최철훈  
(재활1팀/파트장)

- 우리 병원은  
정말 쉽 없이  
움직이고 발전한다.  
그것에 발맞춰 나 또한  
성장해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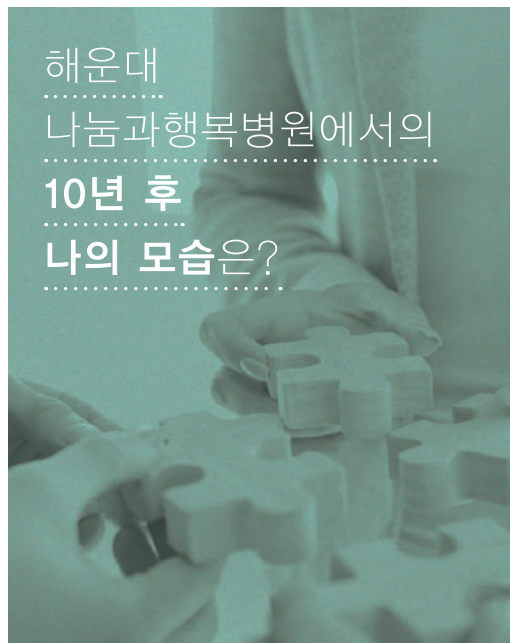
강현주  
(재활1팀/부파트장)

-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물리치료사

오영민  
(재활1팀/파트장)

- 장애인 당사자로 취직해서 그동안 팀원들과 함께  
팀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부담감과 낯섦으로  
병원의 변화들에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작은 변화에도 함께하며,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민규  
(재활코치팀/파트장)



- 30대보다는 성숙한  
40대로 재활치료팀  
동료들과 함께  
재활의 주축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찬우  
(재활1팀/파트장)

-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의  
성장 속에 함께한  
많은 식구들과 지나온  
긴 시간을 되돌아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램^^

김현태  
(원무기획팀/팀장)

- 제가 어디에 있던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은  
누구에게나 희망의 시작이  
떠오르는 병원이길  
바랍니다. 저 또한 누구나  
어울려 살아갈 세상을  
만들기 위해 숲 속의  
단 한 그루의 나무도  
살필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되어있기를  
바랍니다.

이주하  
(재활코치팀/주무)

- 10년 전과 이후 10년 후,  
변함없는 마음가짐으로  
일하는 치료사

김남영  
(재활1팀/부파트장)

- 조금 더 안정적이고  
일관된 사람

신지영  
(재활1팀/파트장)

- 은퇴를 하고 일상속에서  
만족하며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을 하며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희  
(간호팀/수간호사)



- 건강증진센터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며, 이 곳에서 행복바이러스 매개체로서의 역할 담당자

최지윤  
(건강증진센터/부팀장)

- 치료사로서 환자에게 만족감을 주고, 힐링이 되는 치료사가 될 것입니다.

이소윤  
(재활1팀/팀원)

- 점점 발전하여 반짝이는 사람이 되기를

차경인  
(재활1팀/팀원)

- 회사와 제가 함께 발맞추어 나아가는 삶.

최수현  
(건강증진센터/팀원)

- 결혼을 하고 육아휴직을 하고 다시 돌아와 성실히 부지런하게 일하고 있을거 같습니다.

양희지  
(간호팀/팀원)

- 나눔과행복인임을 자랑스러워 하는 나

백영수  
(재활2팀/팀장)

- 변화를 지켜보며 나 또한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10년 뒤에 나의 모습도 정체되어 있지 않고 병원과 함께 성장해 있을 것 같고 그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곽진아  
(재활2팀/파트장)

- 가장 작고 연약한 사람 옆에 함께 있고 싶습니다.

김수경  
(진단검사의학팀/파트장)

- 결혼이나 출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곳보다 매력적인 건강검진센터 업무를 손에 놓고 싶지 않은 욕심이 있어서 10년 후에도 좋은 직원들과 현재처럼 분주하게, 진취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권정은  
(건강증진센터/주무)

- 간호사로서 참여자들의 재활에 협력하는 조력자이자 정서적 지지자

임주영  
(간호팀/책임간호사)

- 모든 활동 분야에서 자신감과 당당함을 지닌 멋진 커리어 우먼의 모습

박정옥  
(재무기획팀/부팀장)

- 지금처럼 후배 간호사들과 즐겁게 일을 하고 있을것 같아요.

장정임  
(간호팀/책임간호사)

- 참여자의 일상을 함께 나누는 친구같은 사회복지사(아줌마)

김지현  
(사회사업팀/팀원)

- 직원이자 대상자로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간에서 함께하는 모습을 발견할 것 같습니다.

홍신해  
(간호팀/팀원)

- 훌륭한 병원의 일원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을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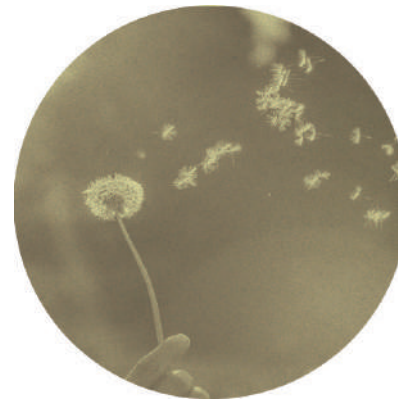
추경진  
(간호팀/주무)

- 모르는 것을 배워가며, 혹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며, 서로 공유하고 성장했으며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오은영  
(건강증진센터/팀원)



십년 후, 後



●  
꿈의 직장에  
일하고 있는 행복한 사원

송현진  
(간호팀/팀원)

●  
현재보다 직업의  
정체성을 찾는 모습

권다솜  
(재활2팀/팀원)

●  
지금보다 디테일하게  
생활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사람

이희연  
(재활2팀/팀원)

●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인물

박소은  
(유방·갑상선센터/팀원)

●  
어떤 직책이나  
직무보다 모든 동료가  
인정하고 환자가 믿는  
병원에서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되는  
우먼파워

김윤경  
(건강증진센터/팀원)

●  
더욱 능숙한 스킬로  
환자의 아픔을  
보듬는 간호사

조정아  
(유방·갑상선센터/팀원)

●  
더 단단해져서  
조금 더 많은 걸  
스스로  
해낼 수 있기를...

김희영  
(유방·갑상선센터/팀원)

●  
10년 뒤 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여전히 나눔과행복에서  
행복하게 일하는 나를  
꿈 껴 봅니다.

정세경  
(유방·갑상선센터/부팀장)

●  
난 충분히 행복하다,  
만족스럽다라고 느끼는  
하루 하루를  
보내고 싶습니다~

오순주  
(유방·갑상선센터/팀원)

●  
열정과 끈기로  
즐겁게 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공수선  
(유방·갑상선센터/팀원)

●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과  
같이 유방·갑상선센터가  
발전하며,  
유방·갑상선에 대해  
누구보다 더  
전문적인 직원으로  
더 나아가 꼭 필요한  
일원으로서의 내가  
되기를 기원한다.

정희진  
(유방·갑상선센터/파트장)

●  
[채움] 병원이 성장  
하는만큼 나의 지식도  
역량도 풍성히  
채워져서 더 많이 나누고  
더불어 행복해 하는  
진정한 워라벨  
소유자가 되어있길  
바래봅니다. 🍀

권혜정  
(유방·갑상선센터/파트장)



● Society

고  
맙  
습  
니  
다

● Sympathy

● Enthusiasm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개원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은 해운대백병원, 특히 저희 재활의학과 의국원에게는 마치 분원과 같이 생각되는 곳입니다. 저희 과에서 급성 재활 치료 후 전원하여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재활병원이 인근에 있어, 환자 분들도 퇴원 시 걱정도 적고, 저희 과 출신이 근무하고 있기도 하여 저희 의국과 상호 연락이 쉽고, 우리 의료진에게도 믿고 마음 편하게 전원 시킬 수 있는 병원입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의 백선미 병원장님은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재활병원 시스템 구축은 물론이고, 누구보다 지역사회 재활치료에 관심을 갖고 환자 자립을 위한 낮 병동 운영과 일상재활센터를 개설하여 활발하게 운영 중입니다.

최근 들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을 통해 급성기-회복기-유지기라는 재활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발병 초기 적극적인 재활치료에 집중하여 나아가 회복기 재활치료와 함께 사회복귀 준비를 병행해 나가는 재활모델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원장님의 의지에 재활치료 의료진의 함께 하고자하는 열의가 더해진다면 국내 최고의 재활병원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노력하신 모든 병원 직원에 대한 최고의 복지도 당연히 따라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은 구성원 모두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 내 최고의 회복기 재활전문병원으로 성장하여 모두가 치료 받고 싶어 하는 병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



많은 재활병원들이  
동경하며

추구하고자 하는  
모범적인 방향이  
되었습니다.

-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의 개원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은 2010년 부산·경남지역 최고의 재활병원이 되겠다는 당찬 포부를 안고 출발 하였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지난 10년간 숱한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날 부산·경남지역의 재활을 선도하는 병원으로 당당히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것은, 재활의료에 있어서 만큼은 실리만을 따르지 않겠다는 서영수 이사장님과 백선미 병원장님의 일심과, 두 분의 뜻을 함께한 선·후배 선생님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생각합니다.

오늘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은 지역민과 환자에게 사랑받는 병원이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특화된 전문센터를 통한 수준 높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로봇보행 훈련실, 자동차이동 훈련실 등 첨단치료 환경을 구축 한 것 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120여명이 제공하는 맞춤형 재활치료, 매년 개최 해운 각종 세미나, 환자와 가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주거개선 지원 활동들은 많은 재활병원들이 동경하며 추구하고자 하는 모범적인 방향이 되었습니다. 또한, ‘누구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존재 한다’는 병원 이념을 오롯이 실천하였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였던 좌식탁구대회를 통하여 가슴이 뜨거웠던 그 날의 기억 또한 오랫동안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직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나온 10년을 되돌아보며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맞이하여야겠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의료 환경과 새로운 도전들이 녹록치 않을 것이나, 여러분이 곧 ‘나눔과행복병원’이라는 자부심을 품고 당당히 여러분의 꿈을 펼쳐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재활의학과·물리치료실의 변함없는 든든한 파트너로 함께 발전해 나가길 기원하겠습니다. ‘행복은 나누고’, ‘나누어 행복한’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이 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

## 04

## 고맙습니다

재활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그런 병원으로  
|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먼저,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개원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개원 후 짧은 시간 안에 지역재활병원으로 입지를 세우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병원이란 생각에 감사의 말씀과 함께 축하의 말씀을 동시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간에 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의 땀과 노력으로 지금의 성과를 이루어 낸 거라 여겨지고, 해운대 뿐만 아니라 부산 내에서도 손꼽히는 병원 역량을 보여주고 있어, 재활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그런 병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활치료실 역시 팀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치료사가 하나되어 환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치료방법을 적용하고, 환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있어 타 병원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고 생각 됩니다.

비단 현재의 성과도 괄목할 만한 부분이지만, 더욱 더 발전하여 환자 재활에 있어 어느 병원보다 앞서가는 기관으로 더욱 공고히 자리매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 번 개원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주는

훌륭한 재활병원이  
되시리라

기대합니다.

-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의 개원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매 해 산학협력차 병원을 방문하면 깨끗하고 정갈한 병원시설과 직원 분들 모두가 밝은 미소를 보여주는 병원입니다.

재활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행동하는 간호팀장님 아래 훌륭한 역량의 간호사들이 열심히 일하며,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실천하는 모범이 되는 병원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재활병원으로서도 재활간호사로서도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주는 훌륭한 재활병원이 되시리라 기대합니다.

지난 10년의 노고가 미래 10년, 100년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귀 병원이 지역의 중심으로,

나아가 글로벌 병원의 중심이 되길 기원합니다. 🌐

● Trust

사  
랑  
합  
니  
다

● Communication

● Love is



더 큰 역할을 하는  
병원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기를

기대합니다.

-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개원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외형적으로도 큰 성장이 이루어 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선미 병원장님의 리드 하에 나눔과행복병원 갑상선진료가 많은 의사와 환자로부터 큰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백선미 병원장님의 여러 모습들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한결같은 그 마음을 가장 높게 평가합니다.

백선미 병원장님과 저와의 인연은 10여년 전 어느 날, 병원장님으로부터 받은 한 통의 편지로부터 시작하는데, 저는 그 편지를 통해 병원장님의 갑상선에 대한 열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이후 저는 갑상선수술 분야에서, 그리고 영상의학을 전공을 하시는 백선미 병원장님은 그 분야에서, 각자가 국내외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진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여 왔습니다.

백선미 병원장님의 성실로 채워진 지난 10년 간의 노력으로 현재 나눔과행복병원은 최고 수준의 갑상선 의료 서비스를 갖춘 병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나눔과행복병원이 늘 그렇게 해 왔듯이 앞으로도 환자의 걱정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는 병원, 진료뿐만 아니라 공부하고 노력하는 병원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개원 20주년 때는 국내외에서 더 큰 역할을 하는 병원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02

## 사랑합니다

환자와 직원  
그리고 의사들이

행복한 병원을  
만들었다고  
확신합니다.

- 한결같은 지난 10년을 뒤로하고 다음 10년은 세계적인 병원으로 도약할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의 개원 축하를 드린지 10년이 지나 다시 한번 개원 10년 축하를 드리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또한 감사합니다.

제가 10년 전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의 개원식에 참석하였을 때, 백선미 병원장님의 향후 병원 운영방안에 관한 얘기를 듣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었는데, 10년을 한결같이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백선미 병원장님을 보며 한없는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환자존중의 의료와 직원을 귀하게 여기는 인간중심의 경영은 병원장님의 인생 철학이 그대로 담겨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런 운영방식을 통해 환자와 직원 그리고 의사들이 행복한 병원을 만들었다고 확신합니다.

백선미 병원장님은 병원경영과 환자 진료뿐 아니라 10여 년 동안 우리 학회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활동에 적극적이었고, 갑상선에 대한 비수술적 치료에 대한 각종 권고안과 논문 작성, 각종 학회 강의를 참여해 왔습니다. 아마도 이런 학문적인 지식의 습득과 축적이 환자 진료의 질을 더욱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은 우리나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갑상선 전문병원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개원 10주년을 기점으로 이제는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갑상선 전문병원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아래의 응원 메시지를 끝으로 제 축사를 마치려 합니다.

“한결 같은 지난 10년을 뒤로하고 다음 10년은 세계적인 병원으로 도약할 것으로 믿습니다.” 📍

환자분들이  
마음놓고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신뢰있는 병원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과 교수 김은경입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개원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개원 시 동영상 통해 축하인사를 드린지 벌써 10년이 지나, 이제는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유방·갑상선센터 중 하나로 자리잡았음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특히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유방·갑상선센터는 5명의 영상의학과 의사의 진료 가능성이 가능한 형태로 '가장 정확한 진단과 최선의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잘 자리잡았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병원, 원하는 의사상을 생각해 볼때, 병이 있음을 정확히 진단하고, 진단에 따른 정확한 치료방법을 제시하고, 적절한 추적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환자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가족같은 마음으로 대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요.

이러한 면에서 해운대 유방·갑상선센터는 체계적인 수련과정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실력이 출중하며, 또한 가족같은 마음으로 환자의 편에 다가서는 열린 마음이 있는 의료진으로 구성되어 환자분들이 마음놓고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신뢰있는 병원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개원 10주년을 맞으면서 앞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10년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안전하고 환자편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도약을 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10년 뒤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개원 20주년 축하메세지를 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 04

## 사랑합니다

정말 감명깊게  
새기면서  
사람들은 희망을  
찾을 것입니다.

- 먼저 나눔과행복병원 백선미 병원장님께 진심으로 병원 개원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저와의 나눔과행복병원의 인연은 약 10여년 전, 갑상선 진료를 받으면서 아는 지인을 통해 원장님을 처음 뵈었습니다.

자상하시고 인자하신 원장님 덕분에 갑상선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척이나 정신적으로 힘들 때, 원장님의 두텁고 신뢰적인 말씀에 많은 위로가 되면서 마음과 몸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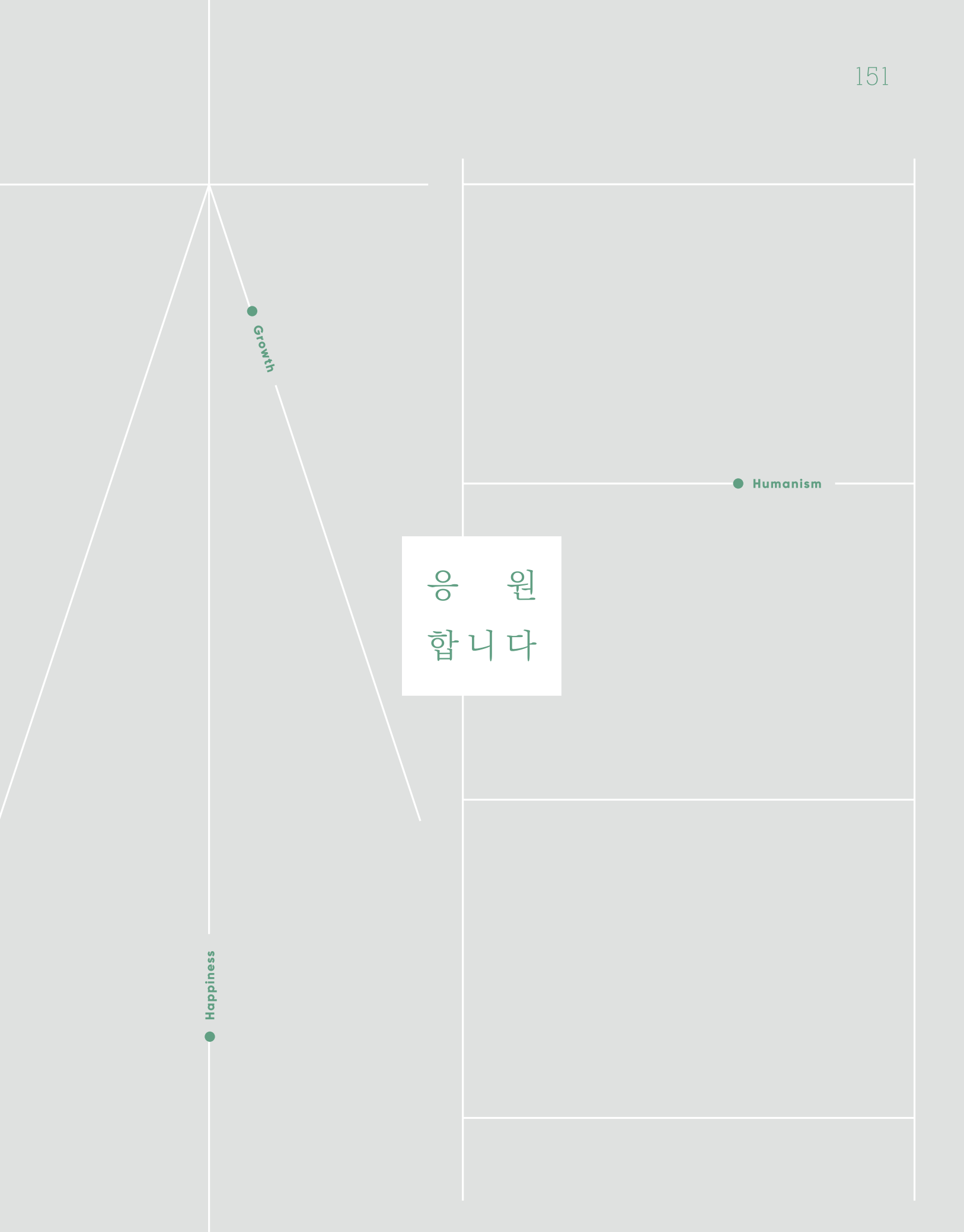
세월이 흐르면서 꾸준히 치료를 받아오던 바 갑상선에 또 다른 종양이 발견되면서 저는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다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봐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서울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디서 치료를 받았는가 물기에 백선미 병원장님 말씀을 드렸더니 백선생님 세심하게 잘 보신다고 하였기에 저는 망설이지 않고 원장님께 시술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매 년마다 검진하면서 잘 관리되고 있다는 원장님의 차분한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병원은 넓혀져 가면서 많은 환자들을 소중한 인연으로 정성껏 대하시는 모습에 병원을 오가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치료를 볼 것입니다.

단지 질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뜻하지 않은 질환을 만난 '사람을 봅니다' 그것은 다양한 심리적,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개별적인 특성, 회복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글귀, 정말 감명깊게 새기면서 사람들은 희망을 찾을 것입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친절하시고, 간호사님들도 친절하면서 내 가족같이 챙겨주시는 모습에 나눔과행복병원은 더욱 더 발전할 것이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 병원장님이 건강하셔서 해마다 실천해 오시는 기부에 손길 많은 사람들의 공감이 되게 하시고, 나눔과행복병원이 다시 한 번 우뚝선 병원으로 번창하시길 바라며 개원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방·갑상선센터 고객

**박 묘 연**



● Happiness

● Growth

● Humanism

응원  
합니다

## 01

## 응원합니다

일상에서의  
온전한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드는 곳이  
병원이라는 생각

• 외부에서 바라보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의 이미지는 환자를 생각하는 진정성에 의한 과감한 투자와 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시도에는 항상 사람이 우선인 곳...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항상 밝은 미소와 온화한 카리스마로 상대방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백선미 병원장님을 떠올리면 나눔과행복병원이란 이름 그대로, 경영 가치관 그대로인 '사람' 그 자체로 느껴집니다. 아울러 참 본인과 닮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에 오늘의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병원장님과의 첫 인연은 휠체어력비로 인해서였습니다.

휠체어력비는 사지 중 적어도 3곳 이상에 장애가 있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로, 농구와 아이스하키,력비의 특성을 조합하여 만든 종목입니다. 중증 장애인들은 장애인 스포츠에서도 소외되어 왔었는데 이들을 위하여 고안된 휠체어 스포츠 종목으로, 척수손상 등으로 중증의 장애가 발생한 이들이 본인의 힘으로 빠른 속도로 이동하며 바람의 흐름을 느끼고, 경기로 인한 짜릿함과 성취감을 맛보는 것은 물론, 일상생활 동작의 개선과 사회생활로의 복귀와 자신감 등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스포츠입니다. 동서대학교 운동처방학과에서는 2005년부터 운동처방 및 재활운동 활동으로 휠체어력비 선수들과 함께 하고 있고 이로 인해 병원장님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백선미 병원장님은 경수 손상, 흉수 손상을 입은 선수들이 휠체어력비를 통해 달라진 삶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마음으로 들으셨고, 진정한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진지한 고민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의료적 치료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병원 이후 삶의 질 향상에까지 그들의 인생에 마음을 다하셨습니다. 참으로 닮고 싶은 멋진 분이십니다.

백선미 병원장님의 신념 중 하나가 '일상에서의 온전한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드는 곳이 병원'이라는 생각이 확고하셨기 때문에 급기야 병원 내에 재활코치라는 새로운 직업군을 만드셨습니다.


## 01

## 응원합니다

현재 국내에 유일하게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만 있는 직업군인 재활코치는 주로 척수손상 이후 휠체어 럭비 선수를 거치며 재활을 이뤄낸 분들로 이루어져 있어 그 특별함이 더 합니다. 본인이 겪었던 병원 생활부터 일상 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활코치는 일상생활 활동, 휠체어 이동기술, 경험담 공유 등을 통해 병원 환자들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자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시며 동서대학교 운동처방학과와 함께 휠체어 사용인을 위한 런닝머신 개발, 보행 재활운동기구, 운동상해를 방지하는 자세 모니터링 시스템, 비접촉식 체형분석 시스템 등의 특허를 개발, 등록하고 이와 관련된 기구 개발을 통해 척수손상인들이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바람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녀의 인생철학이기에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의 앞으로의 행보에 끊임없이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매년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의 개원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병원,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진정한 소통과 나눔을 통한 사랑을 담은 행복한 사람을 닮고 싶어 하는 인생 후배 최현희 배상 

## 02

## 응원합니다

제가  
여러 재활병원  
중에서도

해운대  
나눔과행복병원을  
더욱 지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입니다. 먼저, 해운대나눔과 행복병원의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을 생각하면, 몇 년 전의 첫 만남이 떠오릅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의 센터장을 역임할 때 소속강사들이 부산의 한 병원에 재활코치로 취업했다는 소식을 접한 것이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을 알게 된 첫 시작이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를 재활코치로 직접 채용하였다는 점에서 신선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음에도, 늘 난관에 부딪히던 일을 시작하였다는 것이 인상깊었습니다.

이후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의 병원장님과 많은 병원 관계자분들을 만나면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볼 수 있는 장애인 당사자 재활코치 모델의 도입과 실현을 이뤄낼 수 있었던 에너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은 장애인 당사자가 재활의 주체가 되고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상 재활센터, 장애인 재활코치, 일상 동작 모니터링이 가능한 생활치료실 운영 등 특화된 재활 시스템을 운영해 오셨고, 이는 제가 여러 재활병원 중에서도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을 더욱 지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병원을 찾는 참여자(환자), 그 중에서도 장애인 당사자가 맞춤형 검진·치료·재활 서비스를 받고, 치료 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참여자(환자)와 건강한 일상생활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올해 1월에 지정된 제1기 재활의료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02

## 응원합니다

장애계에서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가 일상생활 복귀에 실패하고 급성기 병원과 요양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재활 난민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으며, 조속한 제도 안착을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파악한 결과, 코로나19 상황과 제도 시행 초기 등의 이유로 대부분의 재활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 연계 활동이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는 지역사회 연계를 위해 병원 내에서 기존에 운영해 오던 일상 재활센터와 재활코치 제도 등을 활용하고, (사)나눔으로행복한동행과 지역사회 안착을 위한 협업 활동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일상으로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준비가 중요해 지는 만큼, 앞으로도 나눔과행복병원에서 재활의료기관의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저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의 특화된 제도인, 장애인 당사자 재활코치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전국적인 표준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당사자 재활코치의 정서적 공감 능력과 원만한 재활 유도 등 긍정적인 효과들이 계속해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코치 제도를 통해 장애 이전의 삶으로 온전히 회복하는 성공사례들이 상당수 배출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재활병원에서 재활코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나눔과행복병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십시오. 저도 의정활동에 이러한 모범사례들을 반영해 적절한 재활병원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는 이미 2019년부터 장애 인식개선 및 환자

일상 복귀, 자립 지원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지역사회 공헌 활동은 물론, 특히 수동적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의 역할을 넘어 회복을 위해 주체적으로 활동한다는 능동적인 의미로 재활병원에서 사용하던 '환자'라는 명칭을 '참여자'로 변경하여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점은 제가 인상 깊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마시고 당사자 중심 재활 및 사회복귀에 힘써주신다면, 부산지역을 넘어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재활병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병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한분 한분 마음속 깊이 응원합니다. 화이팅! 🙌



## 03

## 응원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주민 건강 지키기에  
변함없이  
동행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사람들은 누구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달려갈 수 있는 믿음직한 병원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은 저를 비롯해 우리 구민에게 참 고마운 존재입니다.

우리 구는 올해 들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지속적인 일상을 누리도록 지원하는 '부산형 통합돌봄사업'과 '재가의료급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함께 할 의료기관을 찾아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지만, 고민은 길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치료 뿐 아니라 퇴원 후 빠르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나눔과행복병원이 가장 적격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의료진이 체계적인 재활 시스템을 바탕으로 환자의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경영 철학 또한 '사람중심 해운대'를 만들고자 하는 저의 신념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6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 공동협약'을 체결하였고 관련 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불편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인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가 있기에 코로나19 종식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특별한 인연을 맺은 백선미 병원장님을 비롯한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관계자 여러분께 40만 해운대구민을 대신해 깊은 감사 인사 드립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주민과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주민건강 지키기에 변함없이 동행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개원 10주년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장기입원 장애인(환자)의

### 퇴원 이후의 삶을 고민하는 훌륭하고 따뜻한 마음

- 백선미 병원장님께서 사회사업팀의 몇몇 장애인 분들과 함께 처음 우리 센터를 방문하셨을 때 전 무척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보통 지역기관들이 서로의 협력과 협조를 위해 타 기관을 방문하곤 하는데, 그럴때 기관의 장이 직접 방문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 기관이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을 한다는 점은 유사하지만 서로의 역할이 너무나도 달라 병원장님께서 왜 우리 기관을 방문하신건지 무척 의아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장님의 설명을 들은 후 전 또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재활병원처럼 환자의 통증치료나 운동치료 등의 치료재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재활 이후 환자의 지역사회 속에서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우리 기관과 아주 유사한 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우리는 중증의 환자 혹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복귀와 자기 주도적인 자립생활을 어떻게 지원 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시작하였고, 지금까지도 그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감 또한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도 재활병원의 많은 환자들은 장기간 입원으로 재활과 치료에만 치중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기관들 또한, 시설이나 재가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뿐 병원장애인에 대한 고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두 기관은 상호협력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지역의 장기입원 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자립생활이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장기입원 장애인(환자)의 퇴원 이후의 삶을 고민하는 훌륭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원장님과 전국 최초로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재활코치팀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우리 기관과 함께 지역사회 내에서 협력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기쁜 일입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는 나눔과행복병원의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늘 곁에서 응원합니다! 🌻

## 05

## 응원합니다

문턱을  
 낮추고 함께  
 걸어가주겠다고  
 손을 내민  
 |  
 첫 동반자가  
 되어주었습니다.

- 누구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개원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은 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에게 있어 장애인이 각종 차별과 편견에 당면할 때, 사회가 가지는 마음의 벽을 마주할 때,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가 세상을 향해 벽을 세우고 있을 때, 누구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길에 동행하는 동반자입니다.

처음으로 기관을 방문하여 장애인에 대한 열정을 함께 고민해 준 지지자, 처음으로 귀한 마음을 나누어준 후원자, 처음으로 사각지대 이용자에게 결연을 연계해 준 조력자, 우리 장애인복지관에게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은 '처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동반자입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과의 여러 인연 중 한 사례를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과 잠깐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복지관의 '장애청년자립도 전 직종 훈련반 사업'에 참여 중이던 한 이용자는 어린 시절 교통사고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후유장애(손가락 마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이용자는 제과제빵 훈련과 바리스타 훈련을 통해 관련 업종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었으나, 마비된 손가락은 그에게 불투명한 미래를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마비된 손가락의 재활 가능 여부, 저희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 조심스레 문의드렸습니다. 의료 전문분야의 도움이 절실했던 이용자와 저희의 전화 한 통은... 병원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개인의 시간을 쪼개어 진료를 해주셨던 의료진의 도움으로 '손가락 신경이 살아있다'라는 기적 같고 꿈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병원은 해당 이용자의 상황을 들으시고 재활진료비를 계속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그날, 우리 복지관 직원들은 이용자와 함께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뻐하고 감격했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을 오른손을 숨기기 바빴던 이용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우리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 05

.....  
응원합니다

현재 이용자는 재활훈련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으며 내성적인 본인의 성격을 변화시키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때때로... 병원의 문턱은 장애인들에게 높게 다가옵니다. 어디로 가야할지... 그리고 비용은... 이런 저희에게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은 문턱을 낮추고 함께 걸어 가주겠다고 손을 내민 첫 동반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이외에도 해운대행복과나눔병원은 우리 복지관이 외부지원사업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작업치료비 지원 등을 해주시며 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의 든든한 '지지자, 후원자, 조력자,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이 장애인 럭비팀과도 함께 연대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럭비 경기가 다시 열리는 날, 우리 이용자분들과 함께 그들을 응원할 수 있기를... 마치 2002년도 월드컵처럼 서로 마주 보며 환하게 웃을 그날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어울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과 '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의 개원 1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늘 장애인의 행복한 삶과 하나 되는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 병원장님 이하 직원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06

## 응원합니다

## 부산에

이렇게  
지역사회를 위하는  
모범적인 병원이  
있다는 것은분명  
큰 자랑거리가  
됩니다.

•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이를 위한 파격에는 놀라움 뿐만 아니라 따뜻함과 흐뭇함이 있습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백선미 병원장님 휘하 직원분들께서 보여주는 파격에서도 이러한 긍정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진정한 파격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의 개원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 또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는 장애를 이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으며 장애를 둘러싼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경험하는 당사자 역시 더 나은 일상의 삶의 모습을 그리며 사회 밖으로의 배제가 아닌 사회 속에서의 통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고, 더 나은 사회와 개인의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린 것들을 찾아내고 그러한 것들을 없애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은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와 재활만을 하는 기존의 제한된 병원 역할에 머물지 않고,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병원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장애인 직원 채용을 통해 장애인 역시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회의 한 구성원임을 증명하고 있으며, '환자'라는 부정적 뉘앙스의 용어를 '참여자'로 바꾸는 파격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유관기관·단체와 협력하며 병원의 참여자와 지역 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 자유롭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에 이렇게 지역사회를 위하는 모범적인 병원이 있다는 것은 분명 큰 자랑거리가 됩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과 저희 부산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는 2014년도 '찾아가는 정보메신저' 사업을 시작으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당시 백선미 병원장님께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이시며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병원과의 첫 연계사업은 잘 마무리될 수

## 06

.....  
응원합니다

있었고, 이후로도 '직업 토크쇼', '척수장애인재활훈련프로그램', '휠체어 스킨업' 등의 사업을 함께 했습니다. 물론 병원 직원 분들과 참여자 분들을 위한 장애인식 개선교육도 꾸준히 실시하며, 많은 이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의 10년 간의 발자취에, 저희 부산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가 함께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기쁨이고 자부심입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이 보여주는 파격이 많은 이들의 품격 있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개원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더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늘 가까이에서 함께하고 응원하겠습니다. 📍

## 07

## 응원합니다

늘 행복과  
사랑이 가득한

병원으로  
거듭나길  
응원합니다.

- 행복은 건강 이라는 나무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은 것처럼 늘 따뜻한 햇살 한줄씩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의 개원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들 어렵다고 말하는 코로나시대, 다들 삶이 힘들 다고 말하는시대, 오지 않는 겨울 기온처럼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의 가족들은 환우들의 작은 마음의 소리에까지 귀 기울여주는 이시대의 미래입니다 저 또한 음악봉사를 하며 진정한 찌 감정을 느끼게 해준건 해운대 나눔과 행복병원의 환우들이었습니다 환우들과 함께한 노래캠프를 진행하면서 휠체어에 의지하며 있던 환우들이 어느새 벌떡 일어나 음악에 심취해 같이 손뼉치며 노래를 따라 부르며 함께 울고 웃었던 기억같은 일들을 경험케한 음악의 위대함을 느꼈던 곳이었습니다

첫 마음 그리고 11월, 처음 개원을 하며 다짐했던 그 시간의 그 마음으로 출발선에서 다시 새롭게 희망찬 미래를 준비해나가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늘 행복과 사랑이 가득한 병원으로 거듭나길 응원 합니다.

사)한국예술문화복지사 부산광역시 연합회장 / 러브뮤직 단장 **황성민**

-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나눔과 행복이 더 넘쳐나 그 행복이 지역을 넘어 부산전체로 행복을 전하는 포근한 병원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사)한국예술문화복지사 부산연합회 / 러브뮤직 봉사팀장 **이다희**

- 10년 동안 흔들림없이 꾸준하게 장애인들의 삶에대한 애뜻한 사랑과 남다른 애정으로 장애인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고자 애쓰신 백선미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가족들의 마음에 아낌없는 찬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

사)한국예술문화복지사 부산광역시 연합회/ 러브뮤직 고문 금수암 주지장  
**덕림스님**

에필로그  
*Epilogue*





‘(사)나눔으로행복한동행’은 우리 모두가 일상속에서 나눔을 하나씩 실현하여 나눔의 혜택을 함께 누리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눔으로 함께하는 ‘(사)나눔으로행복한동행’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 나눔은 순환 입니다.



(사)나눔으로행복한동행(이하 나행동)은 누군가 한사람이 만들어가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라는 존재이유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만들어졌고, ‘함께 나눔으로써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실천적인 방향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매 순간 치열하게 고민하고 책임감있게 실천해 나가고자 마련된 우리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기부란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후원 및 기부가 부당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기반으로 행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행동의 법인의 후원 및 기부는 순수함을 기반으로 진심과 진실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런 순수한 여정이 만들어 내는 결과물은 언제나 놀랍습니다.

현재 나행동은 지난 3년간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의 지역사회공헌위원회로 운영되다가 더 다양한 사업과 지역 사회의 연계성을 위해 2020년 6월 정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함을 기반으로 후원금과 기부금은 꼭 필요한 곳에 바르게 사용되며, 매년 연말에 후원·기부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함께 사업진행과 재정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10주년 기념지 발간과 관련해 후원해주신  
업체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후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 하나.** 후원은 정말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습니다.  
후원·기부란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둘.** 후원금 전액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를 후원하는  
(사)나눔으로행복한동행의 후원금으로 전달되었습니다.
- 셋.** 당연히 기부금 처리가 가능한 후원금입니다.  
사업진행과 재정사항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후원자 명단**

상호명	주소	성명	업종
사군자약품(의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로 252, 213호	김정환	의약품, 의료용품
프로메드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천로 19, 2층(남산동)	장지호	의료기기, 교재, 교구
(주)동아메디칼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지 1로 57번가길 67, 11동(대저 2동)	김진태	의료기기, 실험용장비
지원(GI)메디케어	부산광역시 진구 동평로 350, 양정 현대프라자 309호	오동규	의료기기
퍼시스부산전시장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82, 1, 3층(초량동)	이상훈	사무용가구, 의료기기, 철제금고
(주)비에이치메디칼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로 97번길 20, 502호(동광동 2가)	한효영	의료기기
(주)신우엔디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80번길 3-3, 1층	이서영	의료기기
아주메디칼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647번길 22, 1층	하국주	의료기기
제이더블유메디칼(주)	부산광역시 동래구 총렬대로 84, 영남빌딩 4층	윤형석	의료기기
LG화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165, LG디스커버리랩 4층	김도연	의약품
(주)인제메디언스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로 39, 6층(남산동, 영창빌딩)	신치호	의료기기
영진약품(주)부산지점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 50번길 24	권기만	의약품
(주)대웅제약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644	신화현	의약품

**후원 및 기부방법**

사회 전반에 걸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함께 동행하고, 누구나 인권이 존중되고, 누구나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또한 나눔을 함께 만들어가며 후원자 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성장해 가고자 합니다.



후원 안내 QR코드

**정기후원 | 일반후원 | 결연후원 | 기업후원 | 물품후원**



우리는 누구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함께 만든 10년, 아름다운 동행!







／  
직장으로서,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직원이 가장 행복한 삶터

병원으로서,  
사람에 중심을 둔 건강한 의료를  
실현해 가는 병원

기업으로서,  
행복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병원

／

최고의 의료브랜드로  
성장하는 꿈의 병원

나눔과행복!

 홈페이지

 유튜브



\*본 기념지에 수록된 자료 및 콘텐츠의 저작권은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 있습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개원 10주년 기념서

## 사람을 봅니다

---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처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발행인	백선미
디자인·인쇄	디자인우진

---

<http://www.snh.or.kr>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개원 10주년 기념서

# 사랑을 봅니다

지구를 위한 실천! 본 기념지는 친환경 공기를 인쇄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념지에 수록된 자료 및 콘텐츠의 저작권은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 있습니다.